

# 협회소식

## NEWS

### 본회 회장 직무대행에 이명복 부회장 지명



이명복 회장 직무대행

본회 김재철 회장 직무대행은 11월 21일 이명복, 전재명, 김건태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부회장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따라 이명복 부회장을 새로운 회장 직무대행자로 지명했다.

이는 최상백 회장이 지난 10월 회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회장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에 대해 내려졌던 가처분 결정이 법원에 의해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

본회 정관 제15조 2항(임원의 임무)에는 회장이 유고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서 김재철 회장 직무대행 체제는 종결되고,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이명복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 “3천만원 이상 축사 건축공사도 자가 시공 가능”

#### -농림부, 본회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밝혀

농림사업자금으로 집행하는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의 축사 건축 등의 공사도 자영으로 가능하다. 농림부는 본회가 지난 10월 15일 “농림사업자금 집행시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발행한 증빙자료에 의한다”고 한 것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건축 자재상을 포함 하는지 또는 영업을 하는 건설업자에 국한 되는지에 대한 회신 요청”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7월 23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중 개정훈령을 발령하고 농림사업 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 자료, 기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한다는 조항을 신설 하였다. 다만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증빙자료가 아니라도 수급인(노무자 등)의 자필 서명만으로 노무비를 인정해 준다는 개정 훈령을 발령하였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는 3천만원 이상의 사

업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의 범위를 영업을 하는 건설업자로 해석하여 자영으로 건축공사 등을 시행한 농가와 마찰을 빚어왔다. 만약 시·군의 해석대로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건설업자에 한할 경우, 약 20% 정도의 건축비가 높아지게 된다.

농림부는 이번 회신에서 자영으로 공사를 시공할 경우 건설업자뿐 아니라 건축자재상 등을 포함하여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의 지출증빙 서류를 갖추면 시공 가능하다고 밝혔다.

## 본회, 자조금 조항 농업기본법에 반영 건의

### -무임승차자 없는 징수 창구 일원화

본회는 농어촌특별조치법의 폐지에 따라 농림부가 자조금에 관한 사항을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에 신설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당초 농림부의 방침대로 농업기본법에 자조금 관련 조항을 삽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자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진 외국에서 처럼 자조금 징수 창구를 축산물 처리장(우유 처리장, 도축장 등)으로 일원화 하여 무임 승차자가 없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본회는 지난 10월 15일 농림부에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조금 적립지원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본회는 건의서를 통해 "자조금의 목적이 소비촉진사업, 조사·연구사업, 교육사업, 신제품개발사업, 정책개발사업 등이 주 목적인데, 농안법은 농산물의 유통원활과 적정가격 유지를 목적으로 자조금의 근본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폐지에 따라 자조금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되는 농업기본법에 삽입하기로 하고 공청회까지 거친바 있다.

## 본회, 부채 상환 연기 제외조건 완화 요청

본회는 농가부채대책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농가부채 대책안중 "농림업 용도의 부동산 가액 3천만원 이상자는 상환연기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대폭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는 지난 10월 22일 농림부에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농가부채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본회는 농가부채대책안이 중소기업의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간 정부가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역군으로 육성해 오던 전기업 규모의 농가는 대부분 부채상환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돈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이들 농가들이 IMF체제로 부동산 매각도 안되고 일반 은행대출이나 사채 등 자금을 얻기도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상환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환연기 제외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본회, 양돈조합장 협의회와 양돈불황 대책협의

### - '99 규격돈 생산장려금 지원 건의키로

본회 김재철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축협중앙회에서 전국양돈축협조합장들과 양돈불황 대책협의회를 갖고 무임 승차자없는 자조금 제도의 조기 입법과 규격돈 생산 장려금 지원 등을 정부와 해당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양돈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돼지고기 소비촉진과 수출증대를 위하여 양돈협회와 양돈조합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계속 규격돈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특수가축공제대상에 돼지도 포함시켜 가축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 줄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건의서는 본회와 양돈조합장 일동 명의로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 김재철 회장 직무대행, 화재발생 회원농가 방문 위로



본회 김재철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11월3일 민홍진 파주지부장, 정호풍 지도부장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본 파주지부 회원농가를 방문하고 농장관계자를 위로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0월 23일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에서 양돈장을 경영하는 이진형씨의 농장이 전기누전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돼지 1천여 마리 이상이 불에 타 죽고, 돈사 150평과 내부시설까지 완전히 연소되어 큰 피해를 보았었다.

한편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보온을 위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농장화재가 빈발하고 있다.

## 제2검정소, 경매 100회 기념 행사 개최

본회 제2검정소(소장 직무대행 오하식)는 오는 12월 5일 제101차 경매행사에서 검정돈 경매 100회 기념행사를 갖는다.

제2검정소는 경매 100회 기념으로 경남도내 유

관 기관장 및 협회 임원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갖기로 했다. 이날 기념 행사에서 출품 종돈장들은 종돈 구입자에 대하여 TV, 냉장고, 기타 가전제품 등을 추첨을 통해 경매 100회 기념 행사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또한 검정돈 100회 심사 동안에 최다 출품 종돈장, 최다 최우수돈 수상 종돈장, 최근 3년간 최다 구입 지부, 최근 3년간 최다 구입 개인 등에 대해서도 감사패 등을 시상 하기로 했다.

## 본회, 제1, 2검정소장 직무대리자 발령



홍 성 혁

(제1검정소장 직무대리)



오 하 식

(제2검정소장 직무대리)

본회는 제1검정소 정숙근 소장의 면직에 따라 홍성혁 차장을 9월 1일부로 제1검정소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또한 본회는 김형균 제2검정소장의 정년퇴임에 따라 오하식 차장을 10월 19일부로 제2검정소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홍성혁 제1검정소장 직무대리와 오하식 제2검정소장 직무대리는 지난 90년 검정소에 들어온 후 출몰 종돈능력 검정업무만을 담당해온 검정업무 베테랑들이다.

## “마사회 환원” 서명부 국회 전달

본회 김재철 회장직무대행을 비롯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추진위원회 소속 농축산관련 단체장들은 지난 11월 3일 국회를 방문, 그동안 서명한 1

백10만명의 서명부 1백15권을 전달했다. 마추위 소속 단체장들은 국회 및 정당 방문활동을 통해 마사회 환원 활동을 적극 감시하고, 국회의원 추가 동의서 받아내기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 도협의회, 지부 소식

### 경남도협, 수출단지 품질개선 사업비 지원 등에 대한 논의

경남도협의회(회장 : 최영렬)는 지난 11월3일(화) 2시에 경남 소재 부곡로얄호텔 2층 회의실에서 11월 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도협의회에는 최영렬 경남도협의회회장과 본회 정호풍 지도부장, 그리고 그 이외의 경남지역 각 지부 임·역원 및 전현직 임원 등이 참석하여 최근 양돈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도협의회에서는 중앙회 정상화를 위한 토의와 수출단지 품질개선 사업비 지원에 대한 토의, 돈가 하락에 따른 대책 협의, 양돈농가 부채대책 문제 협의 등 회의가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 화성·수원지부, 「허브포그」 생산, 판매

본회 화성·수원지부(지부장 : 윤대열)는 20여 회원농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후 50일령부터 출하까지 한약재를 첨가한 사료로 생산한 「허브포크」 브랜드 돈육을 생산하여 지난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그랜드백화점에서 허브포크 판촉활동 및 시식회를 가졌다.

이날 시식회에 참가한 소비자들은 고기색깔이 특이하고, 고기의 질이 연하고 쫄깃하며 돼지고기 냄새가 거의 없어 상당히 맛있다고 아주 좋은 반응



을 보였다. 윤대열 화성·수원지부장은 “한약재를 첨가한 사료를 급여했을 때 비거세돈에도 웅취가 없었으며, 특이한 향맛이 나기 때문에 일반 돈육과 확실하게 구별이 가능하다”며, “돈육의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고기를 생산한 다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허브포크란 브랜드 돈육을 생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포천지부, 주소 변경

포천지부(지부장 : 김삼식)의 주소가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191-6번지 포천축협 지하로 변경되었다.

전화·팩스는 전과 동일하다.

### 아산지부, 주소 변경

아산지부(지부장 : 김명식)의 주소가 충남 아산시 온천1동 1526번지로 변경되었다.

전화·팩스 전과 동일하다.

### 울산지부, 사무실 이전

울산지부(지부장 : 유재환)의 주소가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280-6번지로 변경되었다.

전화와 팩스번호는 전과 동일하다. **養豚**